

### 3) 향집강체제

1732년 이후 이곳의 향안은 향집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. 이것은 곧 이곳 사람들이 향청 보다는 향교를 중심으로 더욱 조직화했음을 의미한다. '집강'이란 곧 향교를 운영하는 임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.

앞서 1718년에 양사재가 향교 안에 건립되었다고 하였는데, 이 재는 향교 안에 있는 동재나 서재 등과 같은 학동들을 위한 강학소와 그 성격이 다르다. 이 재는 독강(讀講)의 의무가 없는 성인 유학자들의 집합소로 서원의 재실(齋室)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. 그런데 양사재는 한 지역 안에 분산되어 있는 서원의 재실과는 달리 향교라는 한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중심집결소가 될 수 있는 곳이다.

따라서 양사재 건립 이후 향교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향안체제, 즉 향집강체제가 나타났다는 점은 곧 이곳 사람들의 중심이 향교로 옮겨져 이곳에서 본격적인 조직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. 향안이 주로 한 세대를 간격으로 작성된 것임에 반해 향집강안 작성이 거의 매년 이루어진 것은 '집강체제'의 활동이 단순히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.

용정(雍正) 10년 임자 12월 초10일 향집강안』(1732)

조태망	장이당	허 열	이방옥
정휴경	조상정	정만령	조운구
박동도	조진망	정태경	조도명
장이정	이방영	조정명	조기석
조보명	정기징	정 유	조태명

틀요 8월 28일』(1735)

장이유	이 옥	정 수	이제송
조운백	장이규	정 호	

병진 12월 21일』(1736)

허 수	정홍경	허 회	조동우
조덕명			

형사 10월 18일』(1737)

양사수	정 원	정최경(장의)	
조운완			

무오 10월 26일』(1738)

허 엽

희미 12월 초8일』(1739)

조운명

힘술 5월 초1일』(1742)

장이기	조정석	이제례(유사)	조기명(유사)
-----	-----	---------	---------

